

고향사랑기부 지정기부사업 조기 마감

임실군, 유기동물 입양지원 1000만원·양구 꿈나무 육성지원 5000만원 목표 모금액 달성

임실군이 올해 처음 추진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들이 축제를 연계한 전국적인 홍보에 힘입어 목표한 모금액을 일찌감치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12일 군에 따르면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1호인 '고향사랑 동물사랑 유기동물 입양지원사업'과 2호인 '양구꿈나무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 내 모금액을 모두 채웠다.

군은 지난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직접 공감하고 응원할 수 있는 지정 기부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왔다.

이번 1호와 2호 사업 모두 전국 각지 기부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목표 모금액을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고향사랑 동물사랑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은 임실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130여마리의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동물복지향상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유기동물 입양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초 1천만원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으며, 약 한달만에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모금된 기부금은 유기동물 입양가정에 이동장, 배변패드, 사료 등 약 20만원 상당의 입양물품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입양 초기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열린 임실넷스타 행사에서는 입양지원사업 홍보를 병행한 결과 축제기간 동안 유기동물 8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 입양되는 성과를 거두며 사업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

전국의 기부자들은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참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양구꿈나무 육성지원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 사업은 지역 청소년 선수들의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체육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총 5천만원의 사업비 확보를 목표로 지정기부 특별이벤트와 함께 지난 5월 말 장미축제 기간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등 목표액 조기 달성에 주력했다.

모금된 기부금은 양구꿈나무 선수들의 훈련 장비와 교육환경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선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대한민국 양궁을 이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건의 지정기부사업 모금 성공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재원 확보를 넘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정책으로 자리잡고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지난 12일 행정복지주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혁신과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 중심 행정 혁신 방안 논의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 인수위, 행정복지주 주요 업무보고 청취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지난 12일 행정복지주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혁신과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시민소통 행정, 인사·조직 운영, 청렴도 향상 대책, 주민복지 서비스, 인구정책과 함께 남원 다음관 조성 및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에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 남원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오졌다. 양충모 당선인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민의 신뢰"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선 9기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분야별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있으며, 시민권시대 실현과 청렴하고 신뢰받는 시장,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서 수상 이어져

주생면 농촌환경개선 '최우수상' · 제천마을 마을만들기 '장려상'

남원시가 지난 6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주최 제13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농촌환경개선 최우수상(주생면)과 마을만들기 분야 장려상(주생면 제천마을)을 수상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구현을 위한 생생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장으로,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환경개선(플린농촌) 분야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주생면 기초생활기



점사업 주민위원회(대표 이상봉)는 농촌 고령화와 쓰레기 무단방치, 불법소각 등 고질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깨끗하고 순환하는 주생면이라는 비전 아래, 18개 전 마을의 쓰레기 배출 실태조사, 마을별 자원순환 마을지킴이 지정, 주민교육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해 큰 주목을 받았다.

마을만들기 분야 장려상을 수상한 주생면 제천마을(이장 나정주)은 지난해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더욱 탄탄해진 주민회합과 함께 나누는 문화·를 확산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주요 도로 기초번호판 261개 확충 추진

순창군이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편의성을 높이고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도로에 기초번호판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군은 곡수로, 육수로, 인덕로, 장류로 등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2026년 기초번호판 261개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물이 없거나 위치 식별이 어려운 도로 구간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순창군이 2025년

주소정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확보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활용해 진행된다.

군은 앞서 해당 예산으로 도로명판 51개소를 확충한 바 있으며, 이번에 기초번호판 설치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게 됐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순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주소정보시설 필요 구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치 안내가 필요한 261개 구간을 최종 선정해 기초번호판을 신규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추진

남원시가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가 추진하고, 오는 7월 중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총 15억 436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택 345동, 비주택 40동, 지붕개량 17동 등 총 402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재와 벽체의 철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116동, 비주택 철거 42동, 지붕개량 14동 등 총 172동의 공사를 마쳤다. 남원시는 상반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 예산을 활용해 하반기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의 경우 저소득·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 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지원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순창군이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0월까지 수시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주택 324동,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48동 등 총 400여 동 규모다.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가구는 조건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주택 철거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철거는 200만 원과 시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붕개량은 일반가구 500만 원, 취약계층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남원시는 지난 12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부와 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2027~2030년) 남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및 실무부와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의 복지 여건과 주민욕구

를 반영하여 중장기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지역복지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지식산업연구원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 방향과 수립절차,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부와 위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 현안 및 정책 수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여



성·가족, 장애시민복지, 보건의료, 지역복지, 정신건강·자살예방 등 7개 실무부별로 지역의 주요 복지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4년간 추진할 핵심과제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현장점검 실시

임실군은 오는 19일까지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안전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하절기 재난대응 대책, △핵심보험 가입, △소방·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산불대과제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현장 점검으로는 △시설운영관리, △종사자관리, △종사자복지, △아동관리, △운영관리, △회계관리 6개 분야 20개 항목을 점검한다.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요구, 부적정 운영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